

창호 (窓戶)

창호(窓戶)는 창(窓)과 호(戶)의 복합어로서 호(戶)가 지계문을 뜻하기 때문에 결국 창호란 창과 문의 통칭이 된다. 한국 전통 건축에서 창호라 할 때에는 창과 문이라고만 국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즉 한국 건축에서 문(門)의 일종인 대문들은 창호의 의미에서는 제외되고 또 어떤 경우는 창이면서도 문으로 사용되기도 하여 혼동을 일으킬 때가 많다. 고로 이러한 혼란을 막는 데는 전통적으로 창과 문의 기능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이들을 만든 목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대목(大木)이 전담한 문, 예컨대 평대문(平大門), 솟을대문 등은 문으로, 소목(小木)이 전담한 창과 문은 창호로 부른다.

한국 건축에 언제 어떠한 모양의 창호가 발생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선사시대(先史時代) 수혈주거(竪穴住居)에서 가장 원시적 단계의 문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보며 기록상으로는 후한서 동이전 마한조(後漢書 東夷傳 馬韓條)에 나타난 “作土室形如家 開戶在上…”의 호(戶)가 바로 최초의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의 호(戶)도 수혈주거(竪穴住居)의 호(戶)로서 원시적 단계를 벗어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삼국시대(三國時代)에 들어와서는 비교적 다양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 즉 고구려(高句麗) 고분벽화(古墳壁畵: 安岳3号墳, 安城洞大塚, 馬線溝1号墳) 등에서 창과 문

들을 볼 수 있다. 다만 확실한 구조양식을 알 수 없는 것이 아쉽다.

그러나 백제(百濟) 동탑편(銅塔片)에서는 뚜렷이 교창(交窓)의 형태를 볼 수 있고, 이로써 조선시대(朝鮮時代)에 널리 사용된 교창(交窓)이 이미 백제시대(百濟時代)부터의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

신라시대(新羅時代)와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창호(窓戶)로는 우선 가형토기(家形土器)에서 “빗장”의 형태와, 창호(窓戶)를 달 때의 장부와 문틀 형식을 볼 수 있고, 다음 고원사지(高遠寺址) 부도(浮屠) 등에서 “살창”을 찾을 수 있다.

고려시대(高麗時代)에 들어 오면, 비로소 창호의 구체적 실물을 볼 수 있는 바, 부석사(浮石寺) 무량수전(無量壽殿)의 정자(井字) 살창호와 수덕사(修德寺) 대웅전(大雄殿)의 빗살창호가 그것이다. 특히 이들의 ‘돌쩌귀 들어열개 개폐법(開閉法)’을 쓴 것으로 이 개폐법이 고려에서 조선시대로 계승된 것임을 알게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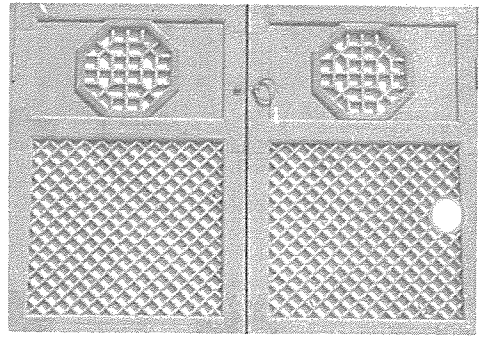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창호구조가 어느 시대보다 풍부하고 그 형식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창호의 입면(立面)과 살짜임새에 의하여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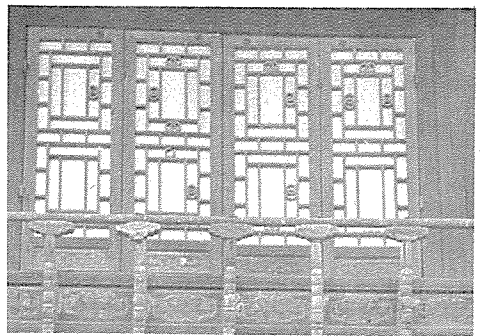
- (1) 살창: 창울거미에 수직으로 살을 세운 창으로서 살의 단면은 사각형·삼각형·육각형·팔각형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 창은 구조적으로 가장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가야시대(伽倻時代)의 가형토기(家形土器)에서부터 보인다.
- (2) 교창(交窓): 주택의 부엌이나, 대청 분합문 상부에, 또 사찰(寺刹)·왕궁(王宮) 건축에 널리 쓰이며, 살짜임새에 따라 일반 교창과 아자교창(亞字交窓) 등으로 나뉜다.
- (3) 떠살창(細筋窓): 떠살문(細筋門)에서처럼 울거미에 수직으로 가는 살들을 좁은 간격으로 끼우고 여기에 수평으로 다섯 줄씩 살을 짜 넣은 창이다. 일반주택·사찰·궁궐의 덧문으로 또는 창으로 많이 사용된다.
- (4) 용자창(用字窓): 용자(用字) 모양과 같이 살짜임새가 생겼는데서 생긴 이름이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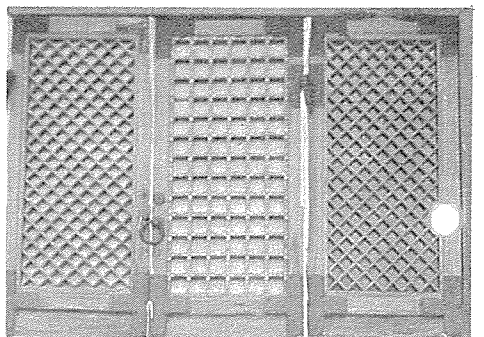
살창



정면창호



아자살창



교살과 정자꽃살

“흙의 건축연구 붐”

흙은 인류가 사용한 가장 오래된 건축자재. 현재도 세계인구의 3분의 1이 흙집에 살고 있다.

「흙을 이용한 건축을 되살리자」는 학술세미나와 주장 등이 최근 파리에 서 일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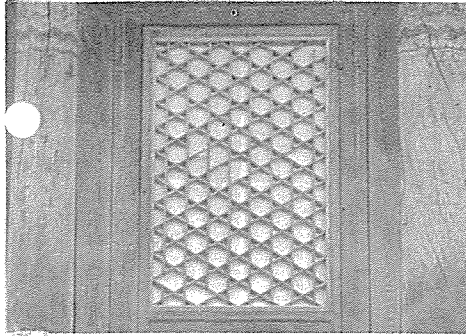
「건축가들이 흙의 건축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에 대한 향수 때문이 아니다. 에너지 위기는 흙의 건축연구를 촉진시켰다」고 2년에 걸쳐 학술세미나장의 흙의 건축 전시회를 준비한 장·데디에씨는 말하고 있다.

흙의 건축은 가마에서 굽지 않고 햇볕만으로 말린 벽돌과 찰흙을 써서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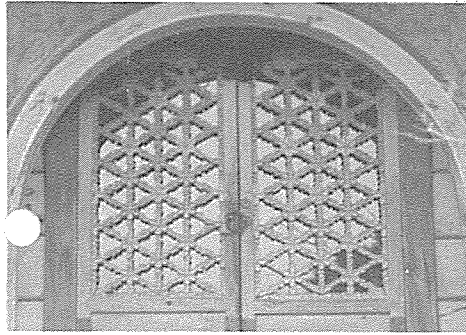
퐁피두 센터 높이의 2배에 달하는 바벨탑도 흙만으로 세워졌다.

로마제국이 리옹에 골족의 수도를 건설할 때도 흙만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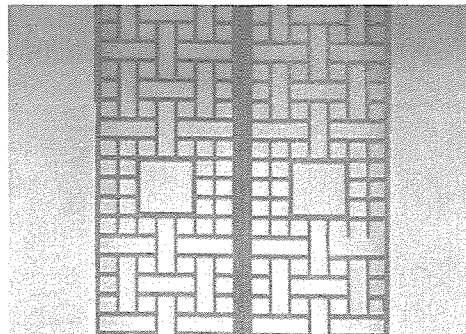
흙의 건축의 전통은 예메니 사막의 건물이나 팀부크투탑에만 남아 있는 게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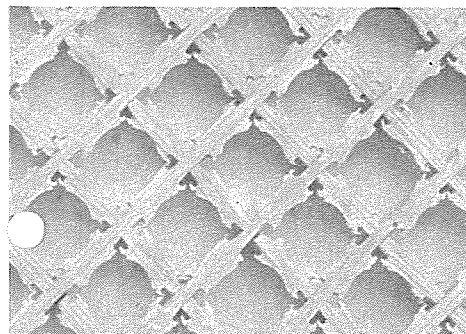
빗꽃살 변형



소슬빗꽃살창



숫대살창



꽃살창

창호도 창과 문으로 혼용되는 바, 주택에서는 특히 행랑에서, 사찰에서는 승방에서, 궁궐에서는 내전(內殿)등에서 사용된다.

(5) 아자창(亞字窓) : 아자(亞字)에서 온 형태로 주택, 특히 안채의 방(房)·사찰·내전(內殿) 등에 널리 사용된다.

(6) 완자창(完字窓) : 아자창(亞字窓)과 같은 용도로 이 역시 완자(完字)에서 온 이름이다.

(7) 정자(井字)살창(窓) : 고려시대 건축인 부석사(浮石寺) 무량수전(無量壽殿) 정면 창호에서 이미 본 것으로 정자형(井字形)에서 온 이름이다. 주로 왕궁·사찰에 널리 쓰이고, 또 이 창호의 살짜임새는 주택에서는 불발기나 교창(交窓)의 짜임새로 많이 이용된다.

(8) 빗살창 : 울거미에 살을 45°와 135°로 빗겨 짜넣은 창호로서 왕궁·사찰의 창호로 널리 쓰인다.

(9) 숫을빗살창 : 울거미에 수직의 살과 30°와 150°방향의 살들로 짜넣은 살창을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이 살들 위에 꽃을 새겨 넣은 숫을빗살창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주로 사찰의 정면 창호로 사용된다.

(10) 숫대살창 : 조선시대 산가지(算木)를 나타내는 살짜임새의 창호로서, 주택과 사찰의 승방에서 볼 수 있다.

(11) 귀자창(貴字窓) : 현존유구(現存有構)로 조선시대의 것으로 발견된 바 없으나 주택의 불발기와 들창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12) 귀갑창(龜甲窓) : 울거미에 거북 잔등 문양처럼 육각형으로 살을 짜넣은 것으로, 조선시대 관명진 진연도(觀明殿 進宴圖)와 같은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귀갑창살을 변안한 창호가 사찰의 승방이나 밀양(密陽) 영남루(嶺南樓)의 불발기에서 보인다.

(13) 꽃살창 : 이 창호는 위에 말한 빗살과 숫을빗살·정자살 등의 살짜임 위에 꽃을 새겨 넣거나 꽃을 부착한 창호를 말하는 바, 왕궁과 사찰의 창호로 다양한 꽃모양으로 나타난다.

특히 정수사(淨水寺) 법당(法堂)의 창호에서는 울거미 속에 아무런 규칙적인 밀바

탕의 살짜임 없이 화병에서 뺀어나온 꽃과 줄기를 살로 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창호는 위와 같은 다양한 살짜임새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 창호에 복합적으로 구성될 때도 많다.

예컨대, 띠살과 골판문의 복합이라든가, 또는 중앙부에는 귀갑살의 변형으로된 팔각 불발기를 넣고 위·아래에 빗살을 짜 넣는 예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조선시대 창호의 호지법(糊紙法)은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라서, 종이를 창호의 안쪽에 바른다. 따라서 한국 건축 외관에 독특한 특징을 주게 된다.

즉 한국 건축의 정면은 대부분 창호로 구성되고, 이 창호의 안쪽으로 종이를 바르기 때문에 외부로는 선적(線的)인 구성을 하며, 내부로는 면적(面的)인 구성을 하게 된다. 하얀 창호지를 배경으로 한 아기자기한 살짜임새는 극적인 선(線)의 율동(律動)을 이루며, 나무의 섬세한 나무결과도 조화(調和)를 이룬다.

그리고 이 호지법(糊紙法)은 내부공간(內部空間)에 독특한 공간정서(空間情緒)를 주니 은은히 비치는 장치의 감각이 바로 그것으로, 밝은 햇빛, 은은한 달빛으로 창호에 던져진 나무의 가지와 잎새의 그림자들은 한 폭의 묵화(墨畵)를 이룬다. 또 창호지는 유리나 달리 소리(音)를 잘 투과시켜 자연의 음향적(音響的) 투영(投影)이 이루어진다. 즉, 앞뜰 큰 느티나무의 매미 소리, 뒷뜰락 감나무의 까치 소리, 처마의 낙수 소리들은 모두 한국 건축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유한 공간정서(空間情緒)이다.

또 한국의 창호는 공간에 연속성을 준다. 즉 안방·대청·전년방들 사이는 모두 창호로 되어 이들을 열었을 때 손쉽게 공간은 연속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창호들은 들어열게라고 하는 독특한 개폐법(開閉法)으로 창호를 접어 들쇠에 매달므로써 곧 내부공간(內部空間)과의 합일성(合一性)은 담장에 살창을 달고 대청에 앉아 이 살창으로 앞내울을 내다보는 한국 건축에서 더 더욱 느낄 수 있는 것이다. <*>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고급 주택가에도 흙의 건축전통이 남아 있다.

이곳에서는 이도비라 불리는 흙벽돌집이 최고급주택으로 통한다.

흙의 건축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시멘트·철근·목재를 절약할 수 있어 건축비가 3분의 1로 절감될 뿐더러 보온과 방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엄청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

다.

『흙 건물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그 누구도 흙집에 살 수 있다.

흙집은 있는 자나 없는 자 모두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흙의 건축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리더아·밀러 여사는 주장하고 있다.

밀러여사는 변호사인 남편과 함께 45년 흙의 건축연구를 시작한 이래 5

채의 흙집을 지었다.

흙집이 내구성이 없을 거라는 일반인의 선입관과는 달리 흙은 어느 건축자재보다도 오래 가고 단단한 건축자재라는게 흙의 건축가들의 지론이다.

그들은 파리에 6층짜리 흙집을 누가 세우려든다해도 이를 말릴 아무런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흙의 건축에 대해 자신만만해 하고 있다.